

2015
한민정통춤협회 정기공연

人舞不二
인무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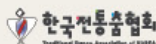
사람과 춤이
둘이 아닌
...
하나



2015. 3. 21 토 - 3. 22 일 6:00pm 국립국악원 예약당

예술총감독·채상묵 구성·연출·한혜경 기획·김은희 해설·양종승

주최·주관



후원



서울문화재단



한국무용협회

2015

한국전통춤협회 정기공연

人舞不二



해설



양종승

한국전통춤협회 학술분과위원장



3월 21일

- 1 김미란 · 태평무
- 2 정주미 · 엇중모리 신칼대신무
- 3 임미례 · 12체장고춤
- 4 김은희 · 승무
- 5 김명신 · 호남산조춤
- 6 이정희 · 도살풀이춤
- 7 한혜경외 8명 · 소고춤



3월 22일

- 1 이현자 · 태평무
- 2 최 선 · 호남살풀이춤
- 3 김온경 · 강태홍류 산조춤
- 4 조홍동 · 한량무
- 5 김정녀 · 살풀이춤
- 6 김진홍 · 지전춤
- 7 이명자 · 즉흥무
- 8 채상묵 · 승무



2015

한국전통춤협회 정기공연

人舞不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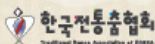
사람과 춤이
둘이 아닌
...
하나



2015. 3. 21 토 - 3. 22 일 6:00pm 국립국악원 예악당

예술총감독·채상묵 구성·연출·한혜경 기획·김은희 해설·양종승

주최·주관



후원



서울문화재단



대한민국무용협회
DANCE ASSOCIATION OF KOREA

내공을 느끼게 하는 연륜의 춤판



2015년은 육십갑자 중 32번째에 해당하는 靑羊해입니다. 청색은 순수, 맑음, 성실, 젊음, 장수를 상징하며 양은 부드러움, 배려, 융화적 의미를 담고 있는 동물이기에 모두가 청양의 기운을 받아 행복하고 평화로운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엔 있어서는 안 될 가혹한 사건들이 온 나라를 우울하게 하였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경험하고 아픈 마음들을 추슬러야만 했던 힘든 와중에서 우리는 또 한 소중한 동지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슬픔을 가져야 했었습니다. 지난해 아픔의 세월을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주어진 소임을 다해야 하는 사명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전통춤협회는 각기 다른 조각보들을 한데 모아 유용하게 감싸 묶을 수 있는 아름다운 보자기를 만들어 전통춤의 보존과 계승이라는 과제 속에서 지금껏 활동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첫 출발부터 호흡을 가다듬고 속도를 조절하며 꾸준하게 달려 온지가 어느덧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엄격한 전통춤 보존의 잣대로 서로의 견해 차이를 극복하며 진정한 우리춤 발전과 계승을 위한 조직체로서 노력하며 세 번째 정기공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많은 춤의 양상들이 현재를 감싸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늘 전통춤의 뿌리를 붙들고 왔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세월을 끊임없이 훈련해야만 하는 것이 전통춤 지킴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를 통해 중앙과 지방에서 올 곧은 정신으로 전통춤 계승을 위해 그 역할을 충실히 해온 우리춤 지킴이들의 내공 쌓인 아름다운 무대로 여러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출연자 모두가 신명이 솟구치는 흥겨운 몸짓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무대는 또한 전통춤을 이어가는 젊은 전승자들에게도 우리춤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한 몫 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창작 작업의 의욕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는 산실의 모태가 될 수 있는 무대 또한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이번 공연을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힘쓰신 관계자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년 3월 21일

한국전통춤협회 이사장 錦堂 채 상 묵

人舞不二 (인무불이)

해마다 봄꽃은 피고지고를 반복함이 그 끝을 보이지 않듯이
전통춤길을 오가며 지낸 묵은 세월 또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듯 만만치 않습니다.

삶이 희노애락을 담은 질곡이라면 춤길 또한 희노애락에 몸을 싣고 마음 다해
온 세월이기도 합니다.

올 2015년 한국전통춤협회의 정기공연의 주제는 人舞不二 (인무불이)
“사람과 춤이 둘이 아니라 즉 하나”입니다.

한평생 삶을 춤에 실어 무게와 깊이가 한량없는 춤
내가 춤이고 춤이 나 인 것을 보여주는 참으로 진솔한 공연이 될 것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우리춤의 뿌리를 굳게 붙잡고, 그 손끝과 발끝에서 묻어나
는 인고의 세월은 바로 人舞不二 (인무불이)를 이루게 됩니다.

그 뒤를 잔결음으로 따라 걷는 춤꾼들
그들조차 눈가에 주름이, 그리고 손끝이 무뎠진 나이들이 되어
짧게는 30년에서 길게는 60년의 춤길을 걸어 온 춤꾼들의 집합이 되었습니다.

한국전통춤협회의 정기공연을 찾아주시는 내빈 여러분의 아낌없는 응원의
박수는, 앞으로 한국전통춤협회가 걸어가야 할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봄향기 짙은 3월 맘껏 우리춤의 향기를 흠향하시기 바라면서 본 공연을 마련
하기까지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천십오년 삼월

한국전통춤협회 부이사장/ 공연기획분과위원장 林晷 한 혜 경



2015

한국전통춤협회 정기공연



3월
21일

- 1 김미란 · 태평무
- 2 정주미 · 엇중모리 신칼대신무
- 3 임미례 · 12체장고춤
- 4 김은희 · 승무
- 5 김명신 · 호남산조춤
- 6 이정희 · 도살풀이춤
- 7 한혜경외 8명 · 소고춤





김미란 · 태평무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된 <태평무>는 강선영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 나라의 풍년과 태평성대를 축원하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의젓하면서도 경쾌하고, 가볍고도 절도 있게 몰아치는 발 디딤새가 힘과 신명, 기량의 과시가 돋보이는 춤이다. 반주음악으로는 경기도당굿에서 행하여진 무속장단에 바탕을 둔 낙궁, 터벌림, 올림채, 도살풀이, 자진도살풀이 가락으로 되어 있다.



한국전통춤협회 이사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이수자
태평무전수관 단장
김미란무용단 단장
함경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 애원성 전수조교



정주미 · 엇중모리 신칼대신무



재인청 계열의 춤을 이어내리신 故 이동안선생의 춤이다. 산자와 죽은자의 서슬 퍼렇고, 가슴 저미는 이별의식을 담고 있는 진혼무 성격의 작품이다. 슬픔을 풀어 신명의 세계로 환치시켜 나가는 과정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 낸다.



한국전통춤협회 이사
중요무형문화재 이동안류 태평무, 재인청류이수자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
우리춤연구회 회장
재인청 전통무용전승회 회장



임미례 · 12체장고춤



12체장고춤으로써, 일제말기 대정권변의 김취흥에 의해 추어졌던 장고춤은 오천향을 거쳐 한혜경에게로 전승된 춤이다. 현재의 장고춤은 12체교방장고춤과故이정범 선생님의 호남우도 설장고 가락을 포함하여 무대 예술화된 춤으로써 12체의 독특한 춤사위가 그 예술성과 한국 춤의 신명과 멋을 더 하게 한다.



한국전통춤협회 이사
전북무형문화재 제15호 호남살풀이춤 이수자
(김취흥류)한혜경의 12체장고춤 보존회 부회장
어사랑 전통무용연구원 대표
강남대 평생교육원 지도교수



김은희 · 승무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인 승무는 소위 법무라 일컫는 민속무용의 진수로 알려져있는 격조높은 예술형식의 춤이다. 춤사위나 춤의 구성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잘 다듬어져 있으며 느린 염불장단을 타는 염불춤이 또한 일품이다.



한국전통춤협회 부이사장
말양검무보존회 회장
우리춤 움직임 원리 연구회 회장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



김명신 · 호남산조춤



전북 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이 춤은 깊은 호흡과 허공을 나르는 우아함이 느껴지며, 맺고 · 풀어 주는 가락에 혼을 담아 고운선과 휘몰아치는 한이 간결하면서도 한 폭의 난을 그린 듯 시원스럽게 뿌려지는 수건으로부터 인간의 이중 구조적 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는 정 · 중 · 동의 미학을 간직한 춤이다.



한국전통춤협회 이사
전북 무형문화재 제15호 호남살풀이춤 이수자
호남연구회 공연이사
제1회 국악신문주최 전국무용경연대회 종합대상 수상
원광대 무용과 출강



이정희 · 도살풀이춤



살풀이춤의 원초형으로 경기도당굿의 뒷전거리에서 추어지던 춤이다. 이 춤은 흉살과 재난을 소멸시켜 안심입명의 종교적 소원에서 비롯되었다. 긴 수건의 공간상의 유선이 매우 다양하여, 선이 그려지는 형태가 화폭과도 같다. 이 춤은 각기 정(靜)중(中)동(動), 동(動)중(中) 정(靜)의 신비스럽고 자유로운 춤사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있다.



한국전통춤협회 상임이사
(사)매헌춤 보존회 이사장
김숙자류 도살풀이춤 보존회 회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출강
YMCA.삼청각 출강



한혜경 · 소고춤



소고춤은 흥과 신명의 몸짓이, 맺고 풀어주는 가락에 혼을 담아 길놀이, 굿거리, 자진모리, 동살푸리, 휘모리, 굿거리 순으로 사물과 태평소 반주가 춤을 이끌어간다. 이춤은 최종실류의 춤을 원본으로 한혜경이 춤태에 맞는 소고춤으로 재조명 하였다.



한국전통춤협회 부이사장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및 97호 살풀이춤이수자
(김취홍류)한혜경 12체 장고춤 보존회 대표
(사)전주대사습놀이 보존회 이사
한예종무용원. 세종대. 선화예고 출강

출연

한혜경 박은하 임미례
이지은 박명옥 진수영
곽우주 나연주 이에본

2015

한국전통춤협회 정기공연



3월
22일

- 1 이현자 · 태평무
- 2 최 선 · 호남살풀이춤
- 3 김온경 · 강태홍류 산조춤
- 4 조흥동 · 한량무
- 5 김정녀 · 살풀이춤
- 6 김진홍 · 지전춤
- 7 이명자 · 즉흥무
- 8 채상묵 · 승무





이현자 · 태평무



중요무형문화재 제 92호로 지정된 강선영류 태평무는 전래의 왕십리 당곳의 특이한 무속 장단을 바탕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춤은 경쾌하고 특이한 발짓춤에 손놀림이 우아하고 섬세하며, 절도가 있어 우리 민속춤이 지닌 정중동의 흥과 멋을 지니고 있으며 음악은 낙궁, 터벌림, 섭채, 올림채, 도살풀이, 자진도 살풀이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전통춤협회 고문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전수조교
이현자 전통춤연구회 대표
한국종합예술학교 전통예술원 출강
국립국악고등학교 출강



최선 · 호남살풀이춤



전북 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이 춤은 깊은호흡과 허공을 나르는 학처럼 멋이 묻어나는 춤사위에
서 우아함이 느껴지며, 맺고 · 풀어주는 가락에 혼을 담아 고운선과 휘몰아치는 한이 간결하면서도 시
원스럽게 뿌려지는 수건은 인간의 이중 구조적 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는 정 · 중 · 동의 미학을 간직한
춤이다.



한국전통춤협회 고문

전북 무형문화재 제15호 호남살풀이춤(동초수건춤)예능보유자

전북 춤예술인상 수상(2007)

제1회 대한민국 무용제 우수상 수상(1979)

개천예술제 특장부문 대통령상 수상(1984)



김온경 · 강태홍류 산조춤



가야금 산조의 명인 강태홍이 자신의 산조 음율에 춤가락을 얹어 성립시킨 춤으로, 직계 춤제자인 김온경에게 전수하여 현재 윤여숙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에게 전수되고 있다. 음악적 성격은 엇박과 더불어 우조의 산뜻하고 우아함과 평조의 편안함 그리고 계면조의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맛이 단아하면서도 화사한 느낌으로 춤사위를 풀어가는 멋이 있다.



한국전통춤협회 고문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0호 동래고무 예능보유자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연합회 회장 역임
신라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 역임
부산광역시 / 경남 문화재위원 역임



조홍동 · 한량무



남사당패에서 연희되던 극적 내용의 4인무중, 선비의 내면적 심성을 남성적인 기품과 역동성으로 호적 시나위의 선율에 흥과 멋의 운치를 담아 즉흥적이면서도 다양한 호남 류의 춤사위로 자유롭게 표출하도록 구성한 춤이다.



한국전통춤협회 고문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5호 한량무 예능보유자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전. 국립무용단 초대 예술감독 / 서울예술단 총감독
현. 국민대학교 초빙교수



김정녀 · 이매방류 살풀이춤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인 살풀이춤은 남도 살풀이장단에 추는 춤이다. 이 춤의 특징은 정·중·동 그리고 맺고 푸는 기법이 주가 된다. 흰 수건을 당기고 채고 걸치면서 한이 담긴 살풀이의 음률을 타고 추어지는 이 춤은 매우 섬세하고 정교 한 춤사위로써 한국 춤의 백미로 일컬어지며 그 예술성이 가장 높은 춤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전통춤협회 수석 부이사장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전수교육조교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역임
(사)한국무용연구회 부이사장 역임
한예종 전통예술원 및 경상대 출강



김진홍 · 지전춤



무속의례인 동해안 오구굿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창호지를 길게 오려 총채처럼 만든 것을 양손 혹은 한 손에 들고 망자의 넋을 불러서 부정을 가시게 하고, 원과 한을 풀어 주어서 극락으로 보내는 춤이다. 이 춤은 동해안 5대 세습무인 김석출선생의 동생인 김계향 선생의 지도로 이루어졌으며, 꽃맞이춤, 바라춤, 바야용선 등이 있다.



한국전통춤협회 고문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4호 동래한량춤 예능보유자
부산예술대상 수상
부산광역시 문화상 수상(1987)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역임



이명자 • 진혜마



즉흥무는 형식에 구애됨 없이 자유자재로 춤출 수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서서 춤춘다 해서 입춤 또는 구음에 맞춰 춤춘다 해서 입춤이라 부르기도 했으며 수건을 들고 춘다하여 수건춤이라 일컫기도 하였다.



한국전통춤협회 고문
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전수조교
전.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 부이사장 역임
전대진대학교 무용과 초빙교수
한예종 전통예술원 출강



채상묵 · 승무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된 승무는 민속춤의 정수라 할 만큼 한국춤의 모든 기법이 집약되어 있으며 품위와 격조높은 예술형식의 춤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고는 풍요로운 민속장단의 2분박과 3분박, 또는 혼합형태의 다양한 리듬으로 타주한다.



한국전통춤협회 이사장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및 97호 살풀이춤이수자
(사)한국무용협회 고문
서울시 문화상 (무용)수상
한예종 무용원, 전통예술원 출강



한혜경 • 소고춤 출연자



박은하



임미례



이지은



박명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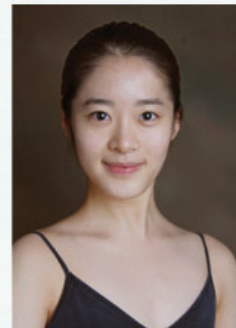
진수영



곽우주



나연주



이예본



연주자 & 스태프



류인상 음악감독



김연수 팽과리



이관웅 아쟁



이성준 대금



이진우 거문고



신현석 해금



이정훈 피리



연홍관 피리



오주영 가야금



박종훈 구름



황민왕 구름



박지혁 징

Staff

사진 송인호 영상 지화중 분장 김민경 홍보디자인 여현정(디자인피싱)



2015

한국전통춤협회 정기공연

